

윤리적 쟁점을 봉합한 침묵의 동의 공간, 〈접히는 베이징(北京折疊)〉

이 수 연*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V. 테크놀로지 효율성의 배반 |
| II. ‘닫힌 공간’의 잃어버린 시간 | V. 나오며 |
| III. ‘자발적 동의’의 함정 | |

I. 들어가며

역사적으로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지점에는 생존의 위협과 함께 인류가 자처한 혹은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지구상에서 삶을 영위해 온 인류는 다양한 방면에서 진보라는 행위를 동반하였고 이를 통해 세계의 판도를 바꿀만한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되는 듯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인 전염병 앞에서 인류가 속수무책이던 시대의 끝이 났다¹⁾”는 견해에 대한 이견을 뒷받침해줄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가능한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류는 또다시 거대한 전환의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국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강사.

1) 유발 하라리 저,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 김영사, 2017, 31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예측과 관련한 이상적인 담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언어로 구축한 사회와 윤리 체계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개인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선 긋기는 극대화되었다. 또한 생존과 결부된 불평등의 문제를 시작으로 사회 도처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실체가 가시화되었다. 또한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바이러스 숙주를 제거하는 것이긴 하나, 숙주인 인간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는 인간과 인간의 대면을 최대한 차단하거나 사적 영역에 대한 감시 아닌 감시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은 부득이하게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고, 인류는 윤리적·사회적 장치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택트(Untact), 온택트(Ontact)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처럼 종식 지점을 예측할 수 없는 팬데믹으로 빚어진 생존과 연계된 불평등의 문제, 혁신의 가속화, 인간관계의 축소, 정부의 통제 범위 확대 이외에도 인류의 문명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난관들이 결합하면서 암울한 미래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미래 사회를 제시한 서사, 특히 오래된 미래 세계인 디스토피아 세계의 현재성에 또다시 주목하기에 이르렀다.

디스토피아는 ‘모두에게 완전한 장소’인 유토피아와 대립되는 ‘모두에게 불완전한 장소’라는 의미에만 그치지 않는다. 디스토피아 세계는 ‘지금 여기’를 토대로 ‘지금 여기 너머’의 세계에 대한 구상 담론이 표상화된 세계이며 역사적 전개 양상을 토대로 예측 가능한 부정적인 산물로 구성된 세계이기도 하다. 또한 어디에도 없는, 언어로만 재현 가능한 세계인 유토피아와는 달리 현재의 징후를 통해서 언젠가는 현실로 드러날 수도 있는 세계가 디스토피아이다. 이 때문에 디스토피아 세계를 통한 현재를 살고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문적 성찰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미래 그 어느 시대의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낸 불평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간을 그린 하오징팡(郝景芳)의 소설

<접히는 베이징(北京折疊)>²⁾을 다루고자 한다.³⁾ 공간과 시간을 분리한다는 설정 자체부터 불편한 미래 상상이긴 하지만 사실 <접히는 베이징>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사회가 제공한 여러 단서를 취합하여 구상 가능한 세계를 그린 소설이다. 그러므로 변수인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지금 중국’의 사회 현상뿐 아니라 그 본질 그리고 본질에 관여하는 현재의 딜레마에 대한 논의를 배제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접히는 베이징>에는 암울한 미래의 ‘그곳’을 그린 일련의 텍스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폭력이 동반된 철저한 감시’ 혹은 ‘불행과 불만을 쾌락으로 제거하는 통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인물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첨예한 대립과 저항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근본악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서사는 ‘접히는 베이징’ 건설 전·후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윤리적 쟁점을 한순간에 봉합해버렸다. 이 때문에 ‘현실 사회를 배제한 서사가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하지만 서사 속에 드러나지 않은 조각난 퍼즐을 맞춰보면 윤리적 쟁점을 봉합한 침묵의 동의 공간에서 ‘지금 중국’ 사회를 비취

2) 국내 번역본에서는 제목을 <접는 도시>로 표기하였지만 본고에서는 작품의 주된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접는 행위에 중점을 두어 <접히는 베이징>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제목 이외의 작품 번역은 국내 출판본 《고독 깊은 곳》(하오징팡 저, 강초아 역, 글항아리, 2020)을 따르기로 한다.

3) <北京折疊>에 대한 논의는 주로 문학 번역, 중국 SF 문학의 현재와 미래, 중국의 현실 사회의 문제를 반영 및 그 본질을 사유하게 하는 SF 리얼리즘(科幻现实主义) 서사에 대한 논의 그리고 <北京折疊> 공간에 표현된 정치에서 기인한 질서에 대한 고찰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국내 논의로는 김태연, <소설 <접는도시(北京折疊)>와 새로운 도시 공간의 상상>에서는 현실 사회에 드러나는 불평등과 계층의 분리를 표상화한 접히는 공간의 도시성을 살피고 공간의 완전한 분리, 즉 ‘요새 도시’의 보안이 만들어 낸 순종적인 제3공간의 인물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또한 김봉연, <하오징팡(郝景芳)의 <접는 도시(北京折疊)>를 통해 문 이동과 ‘정치’의 관계>에서는 개개인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배제하고 각 장소의 적합한 정체성을 만드는 공간 분리를 통한 치안 그리고 이동과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반면 권혜진, <사라진 정치 문화적 상상 — <北京折疊>과 <弦歌> 속 시공간 구현 양상을 중심으로>에서는 <北京折疊>에 내재된 근대적 산물과 근대성에 대해 사유하기도 했다.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히는 공간’ 그 자체를 제외하고도 <접히는 베이징>의 서사가 말하는 혹은 드러내지 못한 ‘암울한 세계, 즉 디스토피아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제를 기초로 하여 행간에 숨겨진 중국의 현실 사회를 읽어내고 ‘접히는 베이징’의 현실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II. ‘달힌 공간’과 잃어버린 시간

하오징팡의 <접히는 베이징>은 서로 다른 세 공간으로 분할되는 도시에서 공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제1공간의 500만 명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 제2공간의 2500만 명 사람들은 둘째 날의 아침 6시부터 밤 10시, 제3공간의 5000만 명 사람들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의 아침 6시까지를 살아간다.



(출처: <https://www.tor-online.de/>)
〈그림 1〉 독일어판 《北京折疊》

또한 각 공간은 서로 다른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공간은 6평방미터의 1인 세대용 아파트, 공용임대주택, 높은 빌딩, 자기부상열차, 어둠으로 점철된 공간은 가로등이 햇빛을 대체한다. 반면 제2공간은 하단의 인용문과 같이 햇빛을 볼 수 있는 공간이며 제3공간에 비해서 낮은 빌딩과 넓어 보이는 거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1공간은 “도로의 양쪽은 높다란 나무와 풀밭이 펼쳐”지고 “시력이 닿는

한 멀리, 또 가까이, 어느 곳에서도 빌딩은 보이지 않⁴⁾”으며 “공원을 둘러싸고 띄엄띄엄 낮은 건물이 분포되어 있다.⁵⁾”

창밖으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창밖의 햇빛에 적응할 수가 없었다. 태양이 노란색이 아니라 흐린 흰색이었다니! 햇빛을 받는 거리는 무척 널찍했다. 라오다오는 제3공간보다 두 배는 넓어 보이는 거리를 보면서 자신이 착시를 일으키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빌딩은 특별히 높지 않았다. 제3공간의 빌딩에 비하면 오히려 많이 낮았다. …… 거리에는 자동차도 많았다. …… 라오다오는 이렇게 많은 자동차를 본 적이 별로 없었다. 그에게 자기부상열차가 익숙했다.⁶⁾

공간, 시간, 환경에 이어 제1공간에서 제3공간으로 갈수록 개인의 선택 영역은 극심하게 축소되고 이는 각 공간의 사람들의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

제3공간에는 2000만 명의 쓰레기 처리공이 있다. 그들은 밤의 주인이다. 나머지 3000만 명은 옷이나 음식, 연료, 보험 등을 팔아 생계를 잇는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쓰레기 처리공이야말로 제3공간을 번영하게 하는 기둥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⁷⁾

제3공간의 사람들은 쓰레기 처리공이 아니면 서비스 판매업에 종사했고, “제3공간을 번영하게 하는 기둥”인 쓰레기 처리공의 한 달 임금은 1만 위안이다. 반면 제2공간 금융자문회사 인턴의 한 달 임금은 10만 위안, 제3공간 반나절 비서 근무를 하고 버는 일주일 임금은 5만 위안이다. 직업군 선택의 제한과 임금의 불평등은 생활 수준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제3공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마저도 버거울 뿐이다.

이처럼 세 공간의 격차를 명확하게 두어 제1공간은 ‘엘리트의 완전한

4) 하오징팡 저, 강초아 역, 《고독 깊은 곳》, 글항아리, 2020, 33쪽.

5) 같은 책, 36쪽.

6) 같은 책, 30-31쪽.

7) 같은 책, 25쪽.

공간', 제1공간과 제3공간의 중간 지대라고 할 수 있는 제2공간은 제1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 제3공간은 '잉여인간의 공간'으로 분리하고 있는 <접히는 베이징>은 '낮익은 불편함'을 건넨다. 사실 서사 속 기회, 권력, 자원 등이 불공정하게 배분된 불평등한 공간은 '지금 여기 너머'의 언어 속에서만 가능한 불편한 상상은 아니다. "불평등의 공간적 표현⁸⁾"은 인간의 삶이 공간을 구성하기 시작한 이후,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이 두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속되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인류는 자연 상태의 공간을 인위적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일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를 두고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의 위계질서를 꾸준히 만들어 왔다.⁹⁾ 그리고 그 공간에서 불평등을 직간접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세 공간으로 구분하여 불평등을 드러낸 '접히는 베이징'이 불편하지만 익숙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낮익은 불편함'이 <접히는 베이징>이 건넨는 또 다른 불편함, 즉 '낮선 불편함'과 만나는 순간 <접히는 베이징>의 세계를 디스토피아로 이끄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 세계에도 완전한 공정과 평등은 존재

8) 조명래, <만들어진 공간 불평등, 지역격차>, 《월간 북지동향》 제157호, 2011, 4쪽.

9) 국내의 번역본에서는 '도시'로 표기하지만, 원저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서사의 공간은 '베이징'이다. 베이징은 '고도(古都)'에 이어 '근대 도시' 그리고 '현대 도시'까지 중국 역사 속 각 시대가 지향하는 공간의 형태를 대표한다. 이러한 베이징만 두고 보더라도 고대 시기부터 거대 공동체를 통제하는 계층은 가장 먼저 공동체의 공적 공간을 사유화하였고 높은 벽을 세워 배제의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근대 시기 베이징은 봉건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황제의 공간이 아닌 모두의 공간으로 변모하는 듯했으나 근대 문명은 또 다른 불평등의 공간을 예고하고 있었다. 또한 신중국 수립 이후 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베이징 공간 구성의 근간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시적인 장소 내부에서 체현되었을 뿐이었다. 이후 중국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도입하였고 도시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베이징은 내부인과 외부인 그리고 '부(富)'와 '가난'으로 분리되는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 공간이 되고 있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암울한 세계의 시점이 미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회’, ‘선택’ 그리고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자유’ 등 변화의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산물들이 현 세계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공간의 경계는 침범할 수 없고 혹여나 침범한다 해도 다른 공간의 이질적인 타자는 잡히기 쉬우며 잡히면 구금이 되는 <접히는 베이징>의 공간은 ‘경계’와 ‘구분’ 그리고 ‘차이’에 따른 차별을 통해 그 가능성의 논의를 소거한다.

그는 이곳에서 48년을 살았는데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나날은 캡슐에서 시작해 캡슐에서 끝났으며, 더러운 식탁과 드잡이질의 기운이 감도는 가판대 사이를 흘러갔다. 그는 처음으로 이 세계의 순수한 모습을 본 것이다.¹⁰⁾

<접히는 베이징>은 세 공간을 대지 안으로 접어버리는 방식으로 봉쇄하여 공간의 횡적 비교를 차단하는 지점에서 ‘소거’를 시작한다. 제3공간에 사는 라오다오(老刀)는 48년 만에 공간의 경계를 넘는 위법 행위를 한다. 그리고 다른 공간의 “내비게이션 지도를 볼 권한도 없는¹¹⁾” 그가 제2공간과 제3공간으로 진입하면서 처음으로 ‘접히는 베이징’의 실체를 보게 된다.

인간은 다양한 기술적 진보와 미디어 발달로 두 발이 아닌 이동 수단을 통해 보다 광활한 공간으로의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인류는 공간의 횡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 평가를 통한 선택 그리고 사유의 장을 확장하면서 진보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물론 소설 속 펑리(彭蠡)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려는 라오다오에게 “가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자네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희망이 없는지 느낄 뿐이야!”¹²⁾라고 말했듯, 비교와 평가를 통한 사유와 선택의 결과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비

10) 하오징팡 저, 강초아 역, 앞의 책, 20-21쪽.

11) 같은 책, 33쪽.

12) 같은 책, 18쪽.

교를 통한 자기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행위는 인간의 실존을 추구하는 방식이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영역에 속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하는 접어버리는 공간은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접히는 베이징〉의 공간에 이은 ‘소거’의 또 다른 방식은 ‘시간의 사유화’에 있다. 상술했듯이 공간 구성의 역사 속에서 공적 공간을 통치 계층이 사유화한 적은 있으나 심리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의 시간이 아닌 물리적인 시간의 사유화는 경험한 적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은 만물의 자연적인 흐름을 인간의 시선으로 구간을 나누고 숫자를 부여하여 계산 가능한 흐름으로 만든 것이다. 인위적인 산물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소멸되지 않는 자원이다. 그러나 〈접히는 베이징〉에서는 물리적인 시간마저도 불공정하게 배분하여 각 공간의 소유로 만들었다. 제1공간의 사람들은 24시간 사용-24시간 수면, 제2공간의 사람들은 16시간 사용-32시간 수면, 제3공간의 사람들은 8시간 사용-40시간 수면으로 서로 다른 시간을 할애하고 할당받지 않은 시간에는 캡슐에서 최면 가스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은 접히는 공간과 함께 대지 안으로 사라져 버린다.

리다자오는 평리가 전환 직전, 최후의 1분이 남았을 때야 캡슐에 들어갈 것을 알았다. 이 도시의 수천만 명과 마찬가지로 캡슐에서 정시에 분출되면 최면 가스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자기 몸이 이 세계와 더불어 뒤집히는 것을 그의 대뇌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¹³⁾

〈접히는 베이징〉에서는 시간을 분절한다. 또한 캡슐 안에서의 수면과 함께 특정 시간은 삭제되기도 한다. “시간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별개의 변화들을 서로 연관시키는 수단¹⁴⁾”이며 시간의 경과는 “인간의 의식적

13) 같은 책, 18쪽.

14) 고석규, 《역사 속의 시간 시간 속의 역사》, 느낌이있는책, 2021, 27쪽.

으로 연루되고 의식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한 사건들의 연속¹⁵⁾”이다. 그러므로 시간의 분절과 삭제는 기억과 망각의 행위를 조정하여 인간의 역사를 단절하고 삭제한다. 또한 인간과 사회의 본질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를 단절한다는 것은 인간의 사유하는 행위의 흐름을 단절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라오다오가 일하는 곳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혹시 그 속에 도시 건설의 역사가 나오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폈다.

그는 아버지의 시대를 보고 싶었다. 어릴 적, 그의 아버지는 늘 창밖의 건물을 가리키며 ‘그때 우리’의 이야기를 했다. 좁은 방안 한가운데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 아버지는 벽돌을 쌓는 동작을 반복했다. 계속, 계속, 끊임없이. 그는 당시 매일 그 사진을 아주 많이 봐서 질려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영상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벽돌을 쌓는 장면이 나오기를 바랐다.¹⁶⁾

‘접히는 베이징 50주년’을 축하하는 제1공간 연회장에서 베이징 시의 모습이 계속 바뀌며 도시의 다양한 모습이 상영되는 동안 라오다오는 본인이 일하는 공간도, 도시 건설 역사의 일부도 삭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결국 ‘접히는 베이징’ 역사의 주체는 ‘제1공간의 그들’일 수밖에 없으며 ‘접히는 베이징’ 역사는 모든 공간이 공유하는 역사는 아니게 된다.

‘접어서 닫아 버린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안의 ‘단절된 시간’은 시간과 공간적 교직 속에서 설정되는 인간의 존재적 삶을 모든 공간의 사람들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포함과 배제의 원리에 따라 동일한 종(種)의 인간을 분류하고 배제된 인간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거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제3공간의 사람들은 “존재가 존재로서의 자기 시간을 멈추고 비-존재로서, 혹은 아주 낮설고 모호하며 불투명¹⁷⁾”한 존재로서만 생존할

15) E.H.카 저, 김택현 역,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2015, 50쪽.

16) 하오징팡 저, 강초아 역, 앞의 책, 50쪽.

뿐이다.

Ⅲ. ‘자발적 동의’의 함정

‘낮익은 불편함’과 ‘낮선 불편함’이 혼재된 <접히는 베이징>은 분명 미래의 암울한 세계이다. 그러나 암울한 세계에서 흔히 드러나는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와 혐오의 시선이 ‘접히는 베이징’ 제1, 2, 3공간의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다. 썩은 냄새를 풍기는 라오다오를 관대하게 맞이하는 제2공간의 친텐(秦天)과 제3공간의 라오다오의 상황과 기분을 살피며 이야기하는 장셴(張顯), 친텐의 편지를 전달하려는 라오다오를 정중하게 대하는 1공간의 이옌(依言)과 로봇에게 잡힌 라오다오를 구해주고 잠시 쉴 수 있는 장소와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다핑(葛大平) 그리고 이들을 붙임성이 좋고 고상하고 편안한 사람으로 여기는 라오다오만이 있을 뿐이다.

각 공간의 할당 시간을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방식으로 분배되었다. 500만 명이 24시간을, 7500만 명이 그 다음 24시간을 사용한다.¹⁸⁾

불편함이 가득한 공간에 이질적인 인간관계의 정경들이 보일 수 있는 사회라면 적어도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방식으로 분배”한 것에 대한 구성원 다수의 동의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권위, “특정한 신분적 질서나 제도에 의해 주어지는 위계¹⁹⁾”에 의한 복종이 가능했던 고대 사회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극단적 불평등이 드러나는 공간에 대

17) 박성현, <디스토피아, 파국과 희망을 향한 진혼곡>, 《실천문학》 136호, 2020, 122쪽.

18) 하오징팡 저, 강초아 역, 앞의 책, 22쪽.

19) 정원규, <현대사회와 윤리개념의 분화: 사회윤리와 개인윤리>, 《철학연구》 59권, 2002, 254쪽.

한 다수의 자발적인 동의를 끌어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강제적인 동의를 구하기 위한 가시적인 폭력과 통제로 인한 무질서와 혼란도 <접히는 베이징>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분배했는지 모를 방식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더 소유하지 못한 다수자에게 수용되었는지, 어떻게 윤리적 쟁점과 사회적 혼란을 통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답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 이후 다양하고 광범위한 양상으로 사회가 변천하면서 개인윤리로 환원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다층적이고 복잡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사회윤리의 관점, 즉 사회 모순을 야기하는 정책, 제도, 구조 등에서 원인을 검토하고 개선하면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물론 완전한 해결까지 이어질 수는 없었으나,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²⁰⁾”하는 불평등·불공정한 문제를 ‘사회정의’로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사회에서 ‘정의’는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의 견해대로 ‘힘’과 결합했을 때 지속할 수 있으며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최선의 방법은 올바른 것을 강하게 만들든가, 강한 것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다.²¹⁾ 그러나 현실에서 “인간은 올바른 것을 강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한 것을 정의로²²⁾”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강한 ‘힘’이 ‘정의’의 속성을 결정하게 되고 변질된 ‘정의’가 명분으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강제력이 합리적인 강제력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20) 존 롤스 저,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13, 36쪽.

21) “힘이 없는 정의는 무효하고, 정의가 없는 힘은 압제다. 힘이 없는 정의는 반항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인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정의가 없는 힘은 공격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정의와 힘은 한데 묶어놓아야 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것을 강하게 만들든가, 강한 것을 올바르게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블레즈 파스칼 저, 하동훈 역, 《팡세》, 문예출판사, 2009, 161쪽.

22) 같은 책, 161쪽.

이처럼 ‘정의’의 본질에 관여하는 강한 ‘힘’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한다. 근대 이후의 인류에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비치는 ‘힘’이 필요했고 그 대표적인 방식은 새로운 이념적 유토피아를 설계한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소수의 권력 주체의 신념과 인식 체계로 구성된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상상계²³⁾’를 형성하고 이내 사회정의의 속성에 관여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합의나 객관적 근거의 이론적 장치가 되어 빠르게 사회 시스템 내부 구조에서 작동한다. 이미 그 자체로도 비가시적인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²⁴⁾이 강한 힘에 의해 구조화되고 개인의 일상적 삶에 침투한다면 사람들은 사회 시스템에서 기인한 억압과 착취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지을 행위의 주체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게 된다. 그럼 부조리한 사회라 할지라도 다수의 ‘복종’이 아닌 ‘동의’의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 권력과 자원의 다수를 소유한 소수자와 그렇지 못한 다수자 간의 불평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공간 분할이 효과적인 관리와 통치 방법으로 돌변할 수 있는 <접히는 베이징>의 사회에 대한 다수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접히는 베이징’ 설계의 기본 축에는 현재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의 질서가 작동한다는 것은 서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를 관통하고 난 후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

23) 사회적 상상계란 ‘공동의 실천과 널리 공유되는 정당성의 감정을 가능케 하는 공동의 이해’로서, 그 자체로는 이론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면서 공동의 인식과 실천의 근거에 자리 잡고 있는 이론적·이데올로기적 배경을 뜻한다. 즉 공동의 인식과 실천에 필요한 어휘와 문법, 표상과 감각을 제공한다.(장문석, 《민족주의》, 책세상, 2011, 68쪽.)

24) “사회 시스템 속에 장착된 구조들은 정의롭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들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기회의 불평등 상태를 공고히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길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비가시성으로 인해 희생자들은 지배관계의 폭력을 직접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만큼 폭력은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된다.” 한병철 저, 김태환 역, 《폭력의 위상학》, 김영사, 2020, 121-122쪽.

시키고자 하는 유토피아²⁵⁾”를 제시하며 출현하였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이데올로기로 막강하고 유혹적인 힘이 되어 ‘올바른 것’의 질서를 만들어갔다. 그 시작으로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가지지 못한 다수에게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소수가 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믿음을 선사했다.

수천만 명의 다른 건축 인부들이 그랬듯 젊은 시절 일자리를 찾아 베이징으로 쇄도했다. 접는 도시 베이징은 아버지와 건축 인부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그들은 한 구역 한 구역씩 옛 도시를 개조했다. …… 그들은 자신이 짓는 것이 어떠한 위용을 자랑하게 될지 알지 못했다. 그렇게 고층 빌딩들이 살아 있는 사람처럼 일어설 때가 되어야 그들은 놀라움에 정신이 나간 것마냥 사방팔방으로 달아났다. 자신들이 괴물을 낳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첫 반응은 도주였고, 경악이 가라앉자 그때서야 앞으로 이러한 도시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영광일 것인지에 생각이 미쳤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계속해서 손발이 닳도록 고생스럽게 일했다. 얌전하고 성실하고 순종하면서, 도시에 남은 온갖 기회를 잡으려 했다.²⁶⁾

그 믿음은 <접히는 베이징>의 라오다오의 아버지와 건축 인부들처럼 가지지 못한 다수를 “얌전하고 성실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한다. 그리고 능력에 따른 임금 불평등과 소득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이 공정하다고 믿게 만들어버린 후 빈곤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였다. 결국 수많은 개인의 기회를 탈취하는 대신 ‘돈’에 대한 열망만을 남겨놓은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부여되며 다수의 가지지 못한 이의 자유와 권리와는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역압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결국 소수 그룹에 진입하겠다는 신자유주의적 욕망이 내재된 가지지 못한 다수는 제3공간의 라오다오처럼 “애초에 돈으로 기회를 사야 한다²⁷⁾”, “돈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다²⁸⁾”

25) 데이비드 하비 저, 최병두 역,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 2007, 36쪽.

26) 하오징팡 저, 강초아 역, 앞의 책, 23-24쪽.

라는 견고한 믿음으로 부(富)와 연결되지 않는 노동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의 구조를 지배하고 빠르게 사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자유와 복지 개선이라는 신자유주의 교리가 “부정의의 교의²⁹⁾”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업, 극심한 빈부격차, 사회 공간적 불평등, 인류 사회를 위협하는 환경 문제들이 심화되자 ‘신자유주의의 종말’과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의 죽음’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출현하였다. 그럼에도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신자유주의는 대안적 이데올로기를 쉽게 허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접히는 베이징’은 신자유주의가 제시한 또 다른 유토피아로 둔갑할 수 있다.

생산력이 높아지고 GDP도 올라가는데 실업률 역시 높아진다 말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 정책으로 보호? 복지 증진? 공장의 이익을 보전해줄 수록 노동자들을 더 고용하지 않으려고 할걸. ……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사람들의 생활시간을 철저히 줄이고, 그런 다음 그들에게 할 일을 찾아주는 것이지. 이해하겠나? 밤 시간에 사람들을 몰아넣었다는 말이야. 이 방법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뭘까? 인플레이션 상황이 사회 하층계급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야. 돈을 찍고 돈을 쓰는 일은 전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화하지. GDP는 올라가지만 사회 하층의 물가는 오르지 않아.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할 거라고.³⁰⁾

그리고 제1공간의 거다핑의 말대로 자유와 평등을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인간’이 배제된 신자유주의적 수사로 공간과 시간을 분할하여 차단한 시

27) 같은 책, 15쪽.

28) 같은 책, 17쪽.

29) “‘부정의의 교의’란 큰 소리로 선언되는 (명시적) 확산들을 뒷받침하고 ‘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암묵적) 전제들로, 숙고되거나 검토된 적이 거의 없다.” 지그문트 바우만 저, 안규남 역,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동녘, 2019, 37-38쪽.

30) 하오징팡 저, 강초아 역, 앞의 책, 56-57쪽.

시스템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3공간에 살면서 “존재 의의도 느끼지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삶이 허무하다는 회의감에 괴로워하지 않는다³¹⁾” 또 다른 라오다오 출현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자발적 동의 과정의 함정이다. 이념적 유토피아를 설계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소수가 다수의 동의를 위한 완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속한다면 사회적 불평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회라 할지라도 효율적인 사회로 그려지는 것은 서사 속에서만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자발적 동의 과정 속 ‘힘’이 현재 중국 사회의 외적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면³²⁾ <접히는 베이징> 서사의 현실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IV. 테크놀로지 효율성의 배반

<접히는 베이징>은 주인공 삶 주변에 드러나는 미래의 최첨단 테크놀로지 자체만을 주목하여 서술하지 않는다. 또한 자기 인식 능력을 갖춘 기계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서사도 아니다. 그럼에도 테크놀로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즉 ‘테크노포비아(Technophobia)’의 시선으로 <접히는 베이징>의 서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접히는 베이징’ 설계의 가시적 요인이자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이념적 장치 역할의

31) 같은 책, 23쪽.

32) 사실 중국은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설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국가와 사회 전체 시스템에 작동한 적이 있다. 그 시간 동안 “부정의의 교의”가 사회 구성원에게 행한 폭력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확산될 무렵, 중국은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힘’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폐쇄적인 국가가 문을 열게 되면서 신자유주의 제도 및 구조는 빠르게 유입되었고 중국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세계경제지표 상위권의 샤프파워(Sharp Power)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수 권력 집단은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결합된 특정한 유형의 힘으로 여전히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저층민들이 살고 있는 중국 사회의 새로운 정의를 정립하고 있다.

중심에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테크놀로지가 공동체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을 제약하는 서사가 과학적 상상력에 그치지 않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현실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직면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에 따르면 한 공동체에서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과 직접으로 일치하는 활동은 ‘노동’, ‘작업’, ‘행위’로 설명이 가능하다.³³⁾ 이 세 가지 활동은 “인간실존의 가장 일반적인 조건³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영속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의 능력³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산물은 때로는 인간을 제약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근대 이후 인간의 ‘작업’으로 창조된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노동’과 ‘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위협적인 인공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접히는 베이징>은 이러한 역사적인 현상을 기반으로 테크놀로지가 어떤 양상과 원리로 ‘노동’과 ‘행위’의 활동을 제약하여 인간실존의 조건을 제거하는지 보여 준다.

‘접히는 베이징’의 제2공간에는 아파트 복도를 거품, 물, 증기를 순차적으로 뿜어내어 청소하거나 음식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있다. 또한 제1공간에는 운전석이 비어있는 자동차와 작은 식당의 서빙 등 도시의 “GDP의 85퍼센트 이상을 차지³⁶⁾”하는 서비스업에는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고 있으며 경비도 종업원도 없는 마트에서는 상품소개, 구매자 평점 등을 모니터

33) 한나 아렌트는 ‘노동’을 개인의 생존뿐 아니라 종의 삶까지 보장하는 활동이라고 했으며 ‘작업’은 비자연적인 부분에 상응하는 활동으로 그 산물, 즉 인간의 인공물(artifact)은 유한한 삶의 무의함과 인간적 시간의 덧없음에 영속성과 지속성을 부여할 수단을 제공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행위’는 인간의 다원성을 전제로 한 세계에서 서로 다른 사물이나 물질의 매개 없이 인간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일한 활동이라고 했으며 이는 정치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9, 84-85쪽)

34) 같은 책, 85쪽.

35) 같은 책, 82쪽.

36) 하오징팡 저, 강초아 역, 앞의 책, 50쪽.

로 보여주는 카트가 손님의 뒤를 따라 붙는다. 또한 공장과 농장에는 기계가 자동 작업을 하고 노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접히는 베이징’의 제1, 2공간의 사람들은 테크놀로지와 연결된 산업 구조의 변화에 융화되어 노동의 상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제1공간에는 반나절만 비서 근무를 하고 절반의 임금이지만 충분한 금액을 받는 많은 “아내”들도 존재한다. 반면 ‘접히는 베이징’의 과반수 이상이 살고 있는 제3공간은 다르다. 사람이 넘쳐나고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은 효율적으로 자본을 축적하는 것에 기여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노동으로 치부할 뿐이다.

인류 사회의 지속적인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자연과 공존하는 세계에서 완전한 주체로 만들어주었으나 인간은 오히려 스스로를 세계에서 소외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외 현상은 자동화의 출현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세계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니다. <접히는 베이징>을 통해 알 수 있듯 기술을 가진 인간, 자본을 가진 인간, 권력을 가진 인간만이 ‘가진 것’을 통해서 ‘가지지 못한 인간’, ‘불필요한 인간’을 분류하여 그들의 세계에서 배제시킨다. 그리고 그 배제에는 테크놀로지의 비용절감이라는 효율성을 기반으로 누군가에게는 ‘노동의 상실’을,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유동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기술적으로 차단한 ‘접히는 베이징’의 세계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소통, 즉 자발적으로 역사의 조건을 창출하는 ‘행위’의 활동 역시 허락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제3공간에 살고 계신 부모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해도 “바랄 수 없는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렇구나 하며 지나갈 수밖에 없³⁷⁾”다고 생각하는 제1공간의 거다평도, 제1공간의 사랑하는 여자에게 찾아가지 못하는 제2공간의 친텐도 공간의 경계를 가로질러 통

37) 같은 책, 57쪽.

합하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다. 단지 ‘접히는 베이징’을 접을 수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간의 사람들은 기술적 시스템 속에서 그들이 맡은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심지어 생활시간을 철저히 줄이기 위해 밤 시간에 몰아넣은 제3공간의 사람들은 그저 생존을 위한 노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활동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정치 공동체의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공동체의 형태와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 고유의 능력³⁸⁾”이 차단된 <접히는 베이징>의 세계는 대부분의 인간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시스템이 구축된 “꼭두각시의 세계³⁹⁾”로, 근대 시기 전제주의의 핵심적 체계를 고스란히 답습한 세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연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삶을 윤락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때 긍정의 효율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상술한 강력한 ‘힘’이 테크놀로지 활용에 관여하면 긍정의 효율성은 이내 그 이면을 드러낸다. 때로는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오로지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공평, 공정, 배분, 평등 등 가치의 속박으로부터 ‘가진 인간’을 해방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날의 검과 같은 테크놀로지의 활용에는 윤리적·사회적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팬데믹과 같이 생명이 온전히 주권 권력에 포섭되는 예외상황⁴⁰⁾은 국가가 실현해야 할 최

38) 김민수, <한나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에 내재된 행위 개념의 의미와 곤란>, 《민주주의와 인권》 제19권 제2호, 2019, 296-297쪽.

39) “전체주의는 인간에 대한 전체적 지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시스템을 갖도록 노력한다. 전체주의의 권력을 얻고 지킬 수 있는 곳은 조건반사의 세계, 자발성의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꼭두각시의 세계뿐이다.” 한나 아렌트 저, 박미애·이진우 역, 《전체주의의 기원 2》, 한길사, 2006, 248쪽.

40) 현대 인류는 세계와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전개할 또 다른 전쟁, 즉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 활용의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유용성뿐 아니라 생명 유지 원리로 환원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바이러스와의 전면 대결에서 치료, 예방이 불가한 상황에 이르자, 인

고의 도덕적 이상이 ‘정의’라는 명제보다는 ‘효율’이라는 명제를 분명히 하여 제어장치의 일시적인 해제를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최고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한 선두 국가 중에는 중국도 포함된다. 정보 통제와 검열로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비난을 받았던 중국은 빠르게 방역시스템을 가동했다. 도시 봉쇄는 기본이고 기준에 차곡차곡 준비해왔던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방역체계의 향연을 벌였다. 방역체제가 가동하는 과정 중에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와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중심에 두고 본다면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바이러스 확산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됐고 그 결과는 인민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공정성의 폭력’으로 작용하였다. 만약 예외상황으로 정당화된 효율적 거버넌스 시스템⁴¹⁾의 질서가 중국 사회에 정착된다면 ‘유형의 접히는 도시’는 아니더라도 테크놀로지를 통한 ‘무형의 접히는 도시’가 건설되고, “사회 구성원을 거대 질서에 맞게 정렬하여 새로운 신분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⁴²⁾”이다.

간은 세계를 더욱 세밀하게 인공물로 대체하고 실재하는 산물과 활동을 가능한 빠르게 디지털 환경으로 옮기는 수비 전략을 세웠다. 물론 근대 이후부터 인간의 다양한 행위를 대신하는 기계 개발에 이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점진적인 진행 및 논의는 지속하여왔고 이를 두고 ‘현상’과 ‘방법’ 그리고 ‘본질’과 ‘이유’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도 줄곧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수비 전략에 대한 논쟁의 주요한 가치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의 효율성’에 치중해 있다 보니 기계 활용의 확산과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더 늦추거나 제지할 수 있는 명분이 약화되었다.

41)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공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이라는 명분 하에 전방위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취합한 사회 구성원들의 신용망을 구축하여 정부·상업·사회·사법 부문에 평점을 매겨 그에 따른 보장과 처벌을 가하는 ‘사회신용시스템’ 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도시의 모든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티 브레인’ 시스템, 생체인식 기반 인지 방식, 모바일 결제에 이은 디지털 화폐 도입 등을 확산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은 상위 도시 중 대부분이 중국의 도시라는 통계가 나올 만큼 CCTV도 증설하였다.

42) 이수연, <인민도 ‘공민’도 존재하지 않는 ‘단 하나의 중국’>, 《미래의 시대,

그는 자신이 어떤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느꼈지만, 결국 운명의 실루엣을 보고 말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실루엣은 너무도 멀고 차갑고 아득해서 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떤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제대로 명확하게 보지도 못했는데. 운명은 그에게 우연히 모습을 드러낸 구름과 비슷했다. 그것은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가 홀연히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숫자라는 것을 알았다. 5128만, 이 숫자 속에서는 그는 단지 평범한 하나다. 만약 공교롭게 5000만에 속하는 것도 아니라 128만 중의 하나로 태어나 반올림을 당한다면 존재한 적도 없는 것처럼, 한줌 흙만도 못했을 것이다.⁴³⁾

그리고 새로운 신분 사회에서는 모든 공간을 다녀오고 난 뒤에 어떤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운명’의 영역으로만 치부하는 존재, 제3공간의 5000만 명으로 단 순히 살아가는 삶이 평범한 삶이라고 믿는 존재, 즉 수많은 ‘라오다오’가 존재할 것이다.

V. 나오며

〈접히는 베이징〉은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공간을 전환한다. 그리고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통해 공간, 시간, 자원을 불공평하게 분리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는 불평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러나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삶을 빼앗아 간다는 비관적인 미래에 대한 논의보다는 ‘접히는 베이징’을 채우는 ‘침묵의 동의’를 통해 사회 전반에 작동하고 있는 현재의 ‘힘’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게 한다. 또한 〈접히는 베이징〉은 그 ‘힘’이 ‘올바른 것’이 되어 테크놀로지 활용에 관여할 때 다수

인문학이 말하다»,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60쪽.

43) 하오징팡 저, 강초아 역, 앞의 책, 62쪽.

에 대한 총체적 지배가 가능한 사회를 보여줌으로써 현재 인류에게 물음을 던지기도 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50여 년 전, 인류가 지속해서 성장을 추구할 경우 자원 고갈, 환경 악화 등의 문제로 지구의 성장은 멈출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예측 시나리오⁴⁴⁾의 경로를 밟고 있는 듯한 현상들이 출현하고 있다. 게다가 바이러스의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인류 사회는 “전체주의의 해결책⁴⁵⁾”의 강한 유혹에 빠질 위험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선택하는 인간, 즉 ‘호모 엘리겐스(Homo eligens)’의 속성이 인간에게서 소실되고 모든 것이 ‘운명’이라는 틀에서 진행된다고 믿는 순간 불평등은 무의식의 소산으로 수용될 것이다. 그리고 ‘기회’, ‘선택’,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자유’ 등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소거하는, ‘낮선 불편함’이 부지불식간에 곧 ‘낮익은 불편함’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그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접히는 베이징>의 세계가 눈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결국 <접히는 베이징>의 미래 서사는 현재의 중국 사회 속에서 라오다오의 아버지처럼 “도시의 건설자였고 거주자였으며 분해자였⁴⁶⁾”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자일 수는 없는 익명의 다수를 보게 한다. 그리고 그들을 쓸모 없는 존재, 잊히는 존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위계적 도식이 적용되지 않는 휴머니즘이 또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는 SF 디스토피아 서사에서 엔딩을 마무리하는 클리셰가 아니라 역사의 전회를

44) 로마 클럽(The Club of Rome)은 1970년에 인류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MIT 슬로안 경영 대학 산하팀에서 지구의 성장을 무한대로 지속한다면 지구의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고 결국 100년 이내 지구는 성장은 멈출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연구 보고서는 1972년에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로 출간되었다.

45) “전체주의의 해결책은 강한 유혹의 형태로 전체주의 정권의 몰락 이후에도 생존할 것이다. 즉 인간다운 방식으로 정치적·사회적 또는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일 때면 언제나 나타날 강한 유혹의 형태로 생존할 것이다.” 한나 아렌트 저, 박미애·이진우 역, 앞의 책, 253쪽.

46) 하오징팡 저, 강초아 역, 앞의 책, 24쪽.

이끌었던 그 어떤 사건에도 사유의 종착점에 있는 가치였으며 현실의 엔딩을 만들어가는 가치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여전히 미래의 디스토피아를 풀어낼 단초는 인간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석규 저, 《역사 속의 시간 시간 속의 역사》, 느낌이있는책, 2021.
- 권혜진, 〈사라진 정치 문화적 상상 — 《北京折疊》과 《弦歌》 속 시공간 구현 양상을 중심으로〉, 《국제중국학연구》 제88권, 2019.
- 김봉연, 〈하오징팡(郝景芳)의 《접는 도시(北京折疊)》를 통해 본 이동과 ‘정치’의 관계〉, 《비교문화연구》 제59권, 2020.
- 김태연, 〈소설 〈접는도시(北京折疊)〉와 새로운 도시 공간의 상상〉, 《중국문학》 제103권, 2020.
- 데이비드 하비 저, 최병두 역,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 2007.
- 라일홀드 니버 저, 이한우 역,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문예출판사, 2017.
- 박성현, 〈디스토피아, 파국과 희망을 향한 진혼곡〉, 《실천문학》 136호, 2020.
- 블레즈 파스칼 저, 하동훈 역, 《팡세》, 문예출판사, 2009.
- 에티엔 드 라 보에서 저, 손주경 역, 《자발적 복종》, b, 2020.
- 유발 하라리 저,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 김영사, 2017.
- 이화형 외 9인 저, 《미래의 시대, 인문학이 말하다》,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장문석 저, 《민족주의》, 책세상, 2011.
- 정원규, 〈현대사회와 윤리개념의 분화: 사회윤리와 개인윤리〉, 《철학연구》 59권, 2002.

- 조명래, <만들어진 공간 불평등, 지역격차>, 《월간 복지동향》 157호, 2011.
- 존 롤스 저,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13.
- 지그문트 바우만 저, 안규남 역,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동녘, 2019.
- 최병두,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종말?>,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4호, 2009.
- 토마 피케티 저, 안준범 역, 《자본과 이데올로기》, 문학동네, 2020.
- 하오징광 저, 강초아 역, 《고독 깊은 곳》, 글항아리, 2019.
- 한나 아렌트 저, 박미애·이진우 역, 《전체주의의 기원 2》, 한길사, 2006.
- 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9.
- 한병철 저, 김태환 역, 《폭력의 위상학》, 김영사, 2020.
- E.H.카 저, 김택현 역,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2015.
- 郝永强, <论《北京折叠》的科幻现实主义思想>, 《传播力研究》, 2020年第8期.
- 王意, <《北京折叠》的空间研究>, 《阜阳师范学院学报》, 2020年 第1期.

<Abstract >

Problems that threaten humanity such as resource depletion, environmental pollution, ecosystem destruction, and abnormal climate are occurring simultaneously around the world. Not only that, as the war against the virus is prolonged, people's anxiety about an uncertain future society is increasing. Due to this, the narrative dealing with the oldest future world dystopia imagined by mankind, that is, a dark and imperfect world, is again the subject of discussion. Discussing the dystopian narrative that predicts the future and presents the agenda for the present

dilemma is inevitable in the present situation.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dystopia world of the Folding Beijing of Hao Jingfang, a Chinese science fiction novel. It won the 2016 Hugo Award for Best Novelette. A 'Folding Beijing' that separates space and time using cutting-edge technology is a world where clear inequality is revealed. It is also a world that does not show how the various ethical issues that can be revealed before and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Folding Beijing' are solved in an instant, but can be reminiscent of totalitarianism that controls human thought and actions.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is point and analyzed why the world of Folding Beijing, except for space, has to be dystopia and whether construction of 'Folding Beijing' is possible in reality in connection with various phenomena currently revealed in Chinese society.

Key Words : Dystopia(디스토피아), Inequality(불평등), Social Ethics(사회 윤리), Neoliberalism(신자유주의) Technology(테크놀로지), Justics(정의).